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나타난 개혁주의생명신학
- 그 원리와 21세기 적용 -

Reformed Life Theology in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Apostle Paul
-The Pauline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21st Century-

최종상(Daniel Jong-Sang Chae)
암노스교회개척학교, 신약학

1. 시작의 말씀: 심각한 선교지가 된 유럽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나를 소개하면 기독교 나라 영국에 왜 선교사가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많다.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이 지금 심각한 선교지로 변한 상황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다. 유럽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 대륙이다. 특히 지난 60여 년 간 서유럽 교회는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유럽의 개신교 출석교인은 평균 3% 정도이고, 유럽 47개국 중 복음주의자가 1%도 안 되는 나라가 19개국이나 된다.¹⁾ 뿐만 아니라 대륙별

1) Jason Mandryk, *Operation World* (Calisle Paternoster, 2010).

인구 대비 복음주의자 비율을 보면 북미 26.8%, 아프리카 17.7%, 남미 16.7%, 아시아 3.5%, 유럽 2.5%로서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²⁾

최근에 발표된 <유럽의 영적 추세>(The European Spiritual Estimate)에 의하면 유럽 인구의 72.7%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1년 영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71.6%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66%는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가장 최신 조사인 영국사회태도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에 따르면 영국 국교인 성공회 교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1983에는 인구의 40%였으나 2010년에는 20%로 절반이 감소했다.⁴⁾ 1989년부터 1998년의 10년 사이에는 런던과 인근 두 지역을 제외한 잉글랜드 전역에서 10% 이상 교세가 감소되었다.⁵⁾ 1979년과 2005년 사이 영국교인의 절반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는가 하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교회 출석율이 또 10% 감소했다.⁶⁾ 영국인구의 5%만이 한달에 한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신학교와 성직자의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웨일즈에는 12개 중 8개 신학교가 문을 닫았다. 1975년 15,911명이던 성공회 목사의 수는 2009

2) Mandryk, *Operation World*.

3) S. Scott Friderich, *European Spiritual Estimate: Final Report*, published on 6 March 2006 by EMRG Strategic Research for Church Multiplication.

4)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 2011/2012.

5) Peter Brierley, *Religious Trends 3* (London: Christian Research, 2002/2003), 2.15

6) Steven Doughty, "Secular UK: Number of Christians is down 10% in just Five Years," *Daily Mail*, London, 23 December 2011, quoting the Citizenship Survey.

년 8,400명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7,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⁷⁾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교회의 수가 목사의 수보다 많다. 한 교회마다 목사 한 명을 배정하려해도 2011년 시점에서 14,098명이 부족했다.⁸⁾ 도시의 큰 교회들에서 2-4명의 목사들이 사역하기에 시골에서는 한 목사가 3-5개는 보통이고 심지어 11개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다. 팁트리(Tiptree)라는 지역의 성공회 목사는 지금은 3개의 교회를 목회하지만 3년 후에는 10개의 교회를 돌보도록 계획되어 있다.

영국에서만 지난 30년간 9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영국에서 장로교 248교회, 성공회 238교회, 감리교 337교회, 천주교 240교회, 침례교 143교회, 독립교단 154교회 등 모두 1,432교회가 문을 닫았다.⁹⁾ 앞으로 10년 내에 또 수 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⁰⁾ 문닫은 교회들은 팔려서 식당, 주택, 공장, 사무실, 창고, 디스코장, 유흥 술집으로 변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기 전에 목회했던 레스터에는 커다란 예배당들이 씨크교 사원, 힌두교 방송국,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다. 1910년 역사적인 세계최초의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던 교회는 공연장과 에딘버러 페스티벌 매표소로 바뀌었다. 우리 말로 성경을 처음 번역한 스코트랜드의

7) Kendall Harmon, "Church of England set to lose a tenth of its clergy in five years," *The Times*, London, 27 November 2009.

8) Peter Brierley, ed., *UK Church Statistics 2005-2015* (Tonbridge: ADBC Publishers, 2011), 1.1.

9) Brierley, ed., *UK Church Statistics 2005-2015*, 1.1.

10) Ruth Gledhill, "Thousands of churches face closure in ten years," *The Times*, London, 10 February 2007.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¹¹⁾ 기념교회가 2000년 3월 첫 주에 문을 닫아 지금은 수퍼마켓이 되었다. 필자가 2011년 9월4일 웨일즈의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선교사 기념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참석한 영국 성도는 9명 뿐이었고, 모두 70세 이상으로 보였다. 목회자가 없으니 여러 해 되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바로 1998년 12월 13일 짐바브웨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당시 조지 캐리(George Carey) 캔터버리대주교가 “서구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the Western Church (is) bleeding to death)”고 한 배경이다.¹²⁾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영국)교회, 40년 내 사라진다(Church will be Dead in 40 Years Time)’는 피터 브라이얼리(Peter Brierley) 박사의 충격적인 조사 보고가 나온 것이다.¹³⁾

유럽 재복음화가 절실한 것은 유럽교회의 감소뿐 아니라 타종교의 성장이라는 또 다른 현상에 근거한다. 특히 이슬람의 유럽 진출이 저돌적이다. 퓨 포럼(Pew Foru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는 무려 300% 성장했다.¹⁴⁾ 무슬림들이 유럽 이슬람화의 거

11) The Korean Bible Society hosted a symposium (3 May 2012, Seoul) in memory of the Rev John Ross on the occasion of the 130 anniversary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Korean Bible: see more story in Korean from <http://chtimes.co.kr/lib/news/4669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561>.

12) George Carey, “quoted from his sermon, Crisis or Christ?” in WCC Eighth Assembly - Press Release No. 48, 13 December 1998.

13) Peter Brierley, as quoted by Hazel Southam in her article, “Church will be Dead in 40 Years Time,” *The Independent, London, 16 April 2000*.

14) “Mapping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Muslim Population,” The Pew Forum, 15 October 2009.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점으로 삼은 영국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다. 2009년 1월30일 영국 유명 일간지 <더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자.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만에 50만이 증가하여 현재 240만으로 성장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여타 사회(종교) 그룹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2백만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연령층이 70대 이상인 반면 무슬림은 4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영국 무슬림협회의 무하마드 압둘 바리(Muhammad Abdul Bari) 총무는 현재 [영국에] 1,600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발맞추어 모스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슬림이 앞으로 영국을 지휘하게 될 것(Muslims would command in the future)이라는 전망이 다른 사회(종교) 그룹에 위협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¹⁵⁾

이미 2004년에 영국 내에서 모스크에서 예배하는 무슬림들의 수

재 무슬림 인구는 15억7천만 명으로서 전세계 68억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무슬림이 무려 500%나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특히 기독교가 급속히 쇠퇴되고 있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유럽의 모슬렘 인구는 유럽 인구의 5%에 달하는 3천8백만이다. 물론 이 중 43%에 해당하는 1천6백50만은 러시아에 살고 있지만 최근 서유럽에서 이슬람은 이민과 출산, 포교로 계속 성장 추세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고, 네델란드 6%, 오스트리아 5%, 독일 4.9%, 스위스 4.3%, 벨기에 4%, 영국 3%로 모두 성장 추세에 있다. 이슬람의 성장은 특히 유럽의 대도시에서 두드러진다. 무슬림 인구는 마르세이유와 로테르담에서 25%, 말모에서 20%, 브뤼셀과 버밍엄에서 15%, 런던, 파리, 코펜하겐에서 10%를 넘고 있다.

15) Richard Kerbj, "Muslim Population 'rising 10 times faster than rest of Society'," *The Times*, London, 30 January 2009.

(930,000)가 국교인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916,000) 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무슬림 지도자들은 무슬림들이 국교인 성공회가 갖는 특권적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¹⁶⁾ <더 타임즈> 신문도 급격한 기독교인의 감소 때문에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은 계속 될 것이며, 2012년이 되면 교회보다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¹⁷⁾

유럽은 종교개혁은 물론, 청교도 운동,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현대 선교운동의 발원지였다. 특히 현대신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이 태동되고 발전된 본산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금 서구세계에 더 이상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오랫동안 세속화 되어 온 유럽에서 교회는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이 거의 2천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은 세계교회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감소현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호주를 비롯한 서구 백인 사회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 감소를 반전시킬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유럽의 교회 쇠퇴는 교회가 종교의 모습

16) www.ummah.com/forum/archive/index.php/t-43124.html?s=0ab4b8060e6b0393f8d12efd76b3a0d.

17) *The Times*, London, 8 May 2008. 영국의 한 성공회년 신부는 2012년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모스크에서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2006년에 주장한 바 있다 (www.yorkshiretoday.co.uk/View...icleID=1383454).

은 갖추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수하지 못했고, 신학은 학문적 노력에 그칠 뿐, 교회와 신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였다. 한국 교회도 이미 이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자성과 함께 마련된 대안이 바로 개혁주의생명신학회의 사명이다. 이 신학운동의 주창자인 장종현 박사는 신학이 학문으로만 연구되고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강한 표현으로 나타낸다. 더 적극적으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강조한다.¹⁸⁾ 교회 사역과 신학 운동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신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2.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얻는 원리

학문적이어야 할 학회에서 유럽과 영국의 암울한 교회 감소현상을 다소 길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가 아무리 오랜 역사, 좋은 전통, 심오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동하는 생명력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기 위함이었다. 반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과 신학의 방향을 발견하고 회복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학교들이 신학과 신앙과 실천을 균형있게 가르쳐야 한

18)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1), 7-9.

다.¹⁹⁾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육에만 치우쳐 있고, 그 신학도 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 학생들을 뜨거운 가슴의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지 못하고, 또 사역 현장에 나아가 배운 것을 실천하며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도 바울은 신학과 신앙과 실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바울은 오늘의 신학교와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이제 그의 삶과 사역의 원리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 교회와 신학교가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바울의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영국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바울의 신학: 복음 진리의 설명과 수호

초대교회에는 꼭 설명해야 할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있었다. (1)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2)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가? (3)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현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4)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시할 책임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²⁰⁾

19) 신학과 신앙과 실천의 균형의 필요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조지 코부르(George Kovoor) 학장도 필자와의 대담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2010.12.10, 참조: 이상현,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과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과 신학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분석하였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체험적 신앙과 성도의 실천이 가장 기본적인 청교도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20) 최종상, 「로마서: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복음」(서울: 이레서원, 2012), 396.

(a) 바울 복음의 핵심

바울은 개종 전에 신앙적 열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종교적 교리와 전통을 지켰을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가 폄박하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 그런 신학적 인식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시며, 그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에 의한 것이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학적으로 이해했고 또 전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5-20).

또한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

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전도 메시지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고린도에서 일 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as of first importance: NIV) 메시지로 전하였다고 회고하였다(고전 15:1-8).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으로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엄청난 기쁜소식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낸 이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계획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은 신속히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확신했다(롬16:25-27; 골 1:26). 그래서 유대는 물론 이방 땅까지 나아가 가는 곳마다 이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회심자를 얻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개척했다.

얼마 후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행 15:1)는 잘못된 구원론이 제기되었다. 바울은 분연히 일어나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하여 믿음으로 얻은 이방인의 구원의 합법성과 충족성을 옹호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예루살렘교회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바울은 베드로까지 꾸짖으면서 복음의 진수를 지키려고 했다. 그후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할 때에도 명쾌한 신학적 설명으로 그 교회를 보호하는 열정의 신학자였다.

예루살렘교회에 율법에 지극히 열심인 신자가 수 만 명으로 늘어나고(행 21:20) 이들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훼방하고 심지어 로마교회까지 어지럽히려하자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선지자까지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복

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했던 로마교회에 못가게 될 것이어서 바울은 말로 전하려 했던 ‘나의 복음’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글로 쓰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이다.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논증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성의 동등성, 칭의의 동등성,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동등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안에서의 동등성을 확립해 주고 있다(롬 1-11장). 이 신학적 동등성에 근거하여 형제 우애를 이루며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롬 12-16장).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엄청난 선교적 열매를 남겼다. 그러나 그가 세계교회를 위해 베푼 “가장 큰 공헌은 … 율법 준수와 상관 없이 얻게 되는 이방인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확립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한 것”이다.²¹⁾ 그가 기록으로 남긴 신학적 작업은 오늘까지도 이방 세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구약을 53번이나 인용하여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했다. 따라서 그는 “오직 성경으로”를 실천한 모범적인 신학자였다.

(b) 바울 신학을 바로 이해하려면

바울 신학은 바울 서신에 기초한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은 그의 신학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13개의 바울 서신들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21) 최중상, 「로마서: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복음」, 386.

바울 서신은 그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전했던 말씀을 전제하고 쓴 후속 편지(follow-up letters)라는 점이다. 개척 당시 아무리 짧게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편지에 쓴 내용보다 많은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에베소에서 삼년을 가르친 내용을 전제하고 에베소서를 썼다. 고린도에서 일년 반을 가르친 내용에 더하여 고린도전후서를 보냈다. 따라서 서신에서 자세히 쓰는 내용의 대부분은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강조하여 가르친 내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이나 8장과 10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고린도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죽은 성도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고전 15:12). 바울이 교회 개척 시절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정확히 가르쳤다면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든지, 나왔다 하더라도 바울은 '상기 형식'(reminder formula)을 사용하여 간단히 전에 가르친 내용을 요약하여 상기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긴 설명(고전 15:12-58)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개척 당시 죽은 자의 부활은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르친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데살로니가교회에서 마찬가지였다(살전 4:13-18). 나중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성도들이 의견이 분분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서신으로 답변을 보낸 것이다. 고린도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다(고전 15:12-19;

살전 4:14).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편지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개척 당시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 내용들로만 가지고 바울과 그의 신학의 중요도를 이해하려는 것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이 마치 예루살렘 도서관에서 그들의 신학을 연구하고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같이 오해하여 신약성경을 학문적으로 풀어보려는 상아탑의 학자들이 많았다. 바울은 선교사며 동시에 신학자였다. 사도 바울은 선교와 신학의 양대 축을 균형있게 잡았다. 신학적 확신과 신앙적 열정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선교하면서 얻은 관점과 경험으로 신학을 형성하며 발전시켰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의 신학을 표현하였다.²³⁾ 갈라디아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의 훼방을 받아 다른 복음을 따라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함의(implications)를 설명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쓴 것이다. 마틴 행겔 교수가 지적한대로 바울은 진정한 선교

22) 바울 서신들에는 바울이 교회 개척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이미 가르쳤기에 반복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가끔 간단히 언급하여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교회 개척 당시 얼굴을 맞대고 선포하고 가르친 내용들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 상기 형식(reminder formula)을 활용하여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재구성한 것은 최중상, "Paul", in *Dictionary of Mission Theology Evangelical Foundations*, ed. John Corrie (Nottingham: IVP, 2007), 275-279를 참조하라.

23) W.G. Kümme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by J. E. Steely (London: SCM, [1972] 1974), 138-139.

사 신학자였다²⁴⁾. 하지만 바울의 신학은 학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학문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로마서도 신학책으로만 읽고 연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등성을 논증하고 있다. 로마 교회의 연합과 성장, 신앙 성숙과 헌신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 따라서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감과 구령의 열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로마서의 본문과 그 안에 흐르는 신학 논지의 맥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바울 서신에 기록된 내용이 바울 신학의 전부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신학 논지로만 가르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신약성경이 선교를 하는 중에, 선교를 위하여 쓰여진 경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선교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약성경에 담겨있는 신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들도 신학적 안목을 가지지 않는다면 선교의 방향이 잘못되고 열매가 불확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학자, 선교사, 목회자가 모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불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들의 사역은 종교화 되고 화석화 되고 말 것이다

24) M.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trans. J. Bowden (London: SCM, 1983), 50-53.

2) 바울의 신앙: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확신과 열정적 헌신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명확히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논증하고 변호하는 뛰어난 신학자였지만 그 신학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심장은 뜨거워졌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가득 차다(롬 11:33-36). 옛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신은 예수님만 위하여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헌신을 하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4-15).

바울로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다(행 20:24).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대로 사는 신앙인이요,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 해야하는 사명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고전 9:16-17).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롬 1:16) 많은 고난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전했다. 바울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자였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충성에서,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 역사를 믿는 확신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열린 문을 찾아다녔다(행 16:6-10; 엡 6:19; 골 4:3-4).

그의 뜨거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불타올랐다. 자기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게된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끊어 오르는 용광로였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행 20:19), 에베소에서 삼년이나 밤낮 쉬지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하던 열정의 목회자였다(행 20:31). 부잣집 아이에게 젖을 다 먹인 가난한 유모가 집에 돌아와 자기 아이에게 어찌하든지 남은 젖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는 것 같이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였다(살전 2:7-8). 새신자들에게 자신을 전제로 드러 목숨이라도 주기를 기뻐한 사역자요(빌 2:17),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손수 일하면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한 인격자였다(살전 2:9-10).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을 용납하거나 죄에 빠지는 삶을 살면 단호하게 사랑의 채찍을 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인내로서 상세히 설명하여 회복하는 보호자였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곧바로 헌신적으로 각 사람에게 전도하고 제자훈련 시키는 신앙의 열심으로 이어졌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동역자(행 15:28, ‘성령님과 우리는’ 참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주시는 소위 제자훈련의 ‘헌장’(Magna Charta)을 주목해 보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8-29).

바울은 이와같이 신학과 신앙을 불가분의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다.

3) 바울의 실천: 그리스도 생명 복음의 현장 적용

실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이 신학과 신앙을 별개로 다루지 않았을 때에 실천이라는 열매가 따라왔다. 그는 신학적 확신을 실천적 삶의 영역과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0-17과 3:1-23에서 분열된 고린도교회를 권면할 때에 그 사이 1:18-2:16까지 그리스

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예수님의 삶을 모본으로 한 신학적 이해를 실천적 삶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에베소서 1-3장에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룬 바울은 4-6장에서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사항을 적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4장을 시작한다(엡 4:1). 그 행함의 내용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과 연합인데,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와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신학적 내용에 근거하여 생활 가운데서 하나로 연합하라고 강권한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신학적 설명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삶의 관계를 권면한다. 로마서에서도 1-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신학적으로 확립한 이후에 12-16장에서는 이 동등성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형제우애로 연합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

바울이 가장 심도 깊게 신학을 표현한 말씀 중의 하나가 빌립보서 2:6-11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엄청난 신학적 말씀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천적 삶의 현장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예로 든 것이다(빌 2:1-5).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도 이 신학적 말씀을 근거하여 (2:12절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는 실질적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듯 예수님이 구주 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실천적 현장은 삶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한다(살전 4:3; 갈 5:19-21). 둘째,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한다(고전 13; 갈6:9-10). 셋째, 불신자를 향하여 선행을 베풀라고 한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한 루터의 영향으로 착한 행실을 강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 왔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하여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엡 2:8-9).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의 중요성을 루터는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도 믿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신 것은,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이고, 두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디도서 3:8에서는 더 강력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중요하도다) 원하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강조하여)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함이라.”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도간에 사랑을 나누고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하면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물어올 때 복음으로 대답해 주라고 한다(골 4:5-6). 예수님도 보여주는 전도를 말씀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 3:15)고 권면했다.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삶의 모습 이야말로 프란시스 웨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최후의 변증” (the final

apologetic)이 아닐 수 없다.²⁵⁾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만 논쟁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신학자라는 것은 그의 전도와 선교활동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는 영혼구령 현장의 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사로 사역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였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령님께 매임 받은 전도자였다(행 20:22-24; 살전 1:5-6). 그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여 전도하는 선교사,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신학자였다(행 16:6-10). 그는 이신칭의를 신학적으로 서술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해 주는 현장의 전도자였다.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정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신학자,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선교사,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지도자였다: “우리가 …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고후 10:11). 기도, 제자양육, 목회, 설교, 봉사 등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 그리하여 바울의 행동하는 신학에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 흘렀다. 이런 면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서(행1:1), 행하신 것(실천적 삶)을 가르치신 것(신학적 내용)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신학적 이해를 한 몸매 지니신 예수님도 그 신학에 부합하는 실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학과 실천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25) Francis Schaeffer,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Wheaton: Crossway, 1984), 164-1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교회가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런 복음의 현장성을 망각한 채, 신학을 “과학의 여왕(the queen of science)”이라고 부르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학문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부에 서유럽교회는 급격히 감소하고 만 것이다. 화란과 영국 같은 개혁주의의 본산지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정통 보수 신학이라 할지라도 학문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학문에 치중하는 신학교들은 교회 강단에서는 불을 뿜는 호랑이가 되지만 불신자들이 있는 길거리에서는 기죽은 고양이 되고마는 사역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삶에서 보는데로 신학적 이해를 학생들의 신앙성장과 삶의 현장과 직결시키는 신학교 교육,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과 신앙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어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준비된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학교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²⁶⁾

3. 바울 원리의 21세기 적용사례: 암노스교회개혁학교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로 성장시켰다. “교회개척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사도적 전략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²⁷⁾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하늘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26)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육이 실제 목회사역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과 그 대안에 대해서는 James Emery White, *What They Didn't Teach You in Seminary: 25 Lessons for Successful Ministry in Your Church* (Grand Rapids: Baker, 2011)을 보라.

27) Rob Warner, *21st Century Church: Why Radical Change Cannot Wait* (Eastbourne: Kingsway, 1999), 218.

인 전도방법은 새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⁸⁾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영국에서 교회들이 급격히 문을 닫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개척을 통하여 영국과 유럽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럽재복음화에 일익을 감당하고자 2011년 10월1일 런던 외곽의 브렌트우드(Brentwood)에서 암노스교회개척학교(Amnos Church Planting School)를 시작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을 교회개척자로 양성하는 12달 1년과정으로서 전도훈련, 목회훈련, 영성훈련, 인성훈련을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학과 신앙과 실천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이 네가지 훈련을 균형있게 제공하고자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강의는 유럽재복음화의 비전에 동참하는 여러 나라의 방문교수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 선교, 전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인들이다. 교수들은 자연히 교회개척과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의 학문적 전문성과 실제 경험을 근거로 가르치게 된다. 말은 과목과 성경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심장으로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신학과 신앙과 실천의 영역을 가슴으로 배우게 된다.

암노스교회개척학교에서는 실천과 실습을 강조한다. 기도를 배우기에 새벽기도를 한다. 한달에 한번 여러 지역교회 성도들을 모아 "인터

28) C. Peter Wagner, as quoted in DCPI, *Church Planting Essentials* (San Diego, DCPI), 6.

29) Jean Giono, 「나무를 심은 사람」, 김경은 역(서울: 두레, 2005). 프랑스 남부의 황폐한 땅에 수십 년간 묵묵히 하루에 100개씩 나무 씨앗을 심어 훗날 실제로 바다같이 넓고 울창한 삼림을 조성하는 대업을 이룬 실존 인물 엘제아르 부피에의 이야기는 복음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고 작은 교회 나무를 계속 심어가는 것이 유럽재복음화의 최선의 전략임을 보여주는 감동 실화이다.

씨드”(Intercede)라는 영국을 위한 기도회를 주도하면서 기도확산 운동을 하고 있다. 전도를 배우고 매주 토요일마다 팀트리(Tiptree)라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아가 축호전도를 한다. 한인 성도들과 영국 성도들을 전도에 동원하기도 한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하여 이미 1200 여 가구를 방문했고, 이중 500여 명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 중 50여 명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11월이면 한 학생이 졸업 후 그곳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이 교과과정 중에 이미 교회 하나를 개척한 셈이다. 즉 학생들은 교회개척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보게 된다. 이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어 졸업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개척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20명의 학생들이 모집하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네개의 전도대를 만들어 네 지역으로 정규적으로 나아가 전도하면 졸업 전에 이미 네개의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졸업 후 10-15개 정도의 교회를 더 개척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개척 5년 이내에 지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가 재생산될 것이다. 우리 졸업생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를 개척하여 전도로 계속 성장시키면서 영국과 유럽의 교회 감소 속도를 늦추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감소추세를 반전시켜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도한다. 수학적 계산 같이 개척되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싶다는 우리 졸업생들의 열망과 헌신을 기다리셨다는듯이 축복해 주실 믿는다.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수학과정 중에 목회를 실습해 보기가 쉽

지 않다. 그래서 7-9월에 10주 동안 학생들을 지역교회로 인턴십을 보낸다. 전도와 제자훈련 중심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로 가서 그 교회의 사역과 운영을 보기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배우게 한다. 담임목사로부터 목회 멘토링을 받으면서 목회비전과 사역을 배우게 한다. 학생들은 인턴십 교회에서 배운 원리를 어떻게 자신의 교회개척과 목회에 적용, 실천할지 계획해야 하며 이것이 그들의 졸업논문이 된다. 학생들은 이미 11월부터 6월까지 다섯번에 걸쳐 기도와 비전으로 “나의 교회개척 계획서”를 조정, 발전시키며 개척의 꿈을 키워왔다. 이들이 개척할 때 인턴십 교회들이 기도로, 물질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노스는 특이한 신학교라고 말한다. 하지만 암노스는 성경이 보여주는 사역자 훈련학교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학문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졸업후 개척과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를 모본과 교육으로 전수하는 사역자 양성학교이다. 저는 다른 교수의 강의도 거의 다 참석하여 배운다. 기도시간과 전도는 빠지지 않는다. 모본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식사, 휴식, 작업시간 등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교육과 훈련의 기회로 활용한다.

우리 영국 학생들은 참으로 열심이다. 새벽기도와 강의, 전도를 빠지지 않다. 가르치는 것을 스펀지 같이 받아들이다. 영국을 불쌍히 여겨 그 땅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해 달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 직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한 학생은 옛 직장에서 수 억원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자신의 열정이 돈 버

는 데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며 단호히 사양하기도 했다. 주님께서 암노스에 주신 비전과 헌신된 영국 학생들에게서 영국과 유럽 재복음화의 소망을 갖는다.

또한 제가 영국에서 관련했던 세 교회에서 가졌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영국교회를 다시 소생시키시려는 열망이 있음을 본다.

세인트피터즈교회(St. Peter's Church):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저희가 살던 런던 웨스트 해로우(West Harrow) 집 바로 앞에 거대한 석조건물의 교회당이 있었다. 하지만 문을 닫아 비어있었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구입하여 술집으로 만들려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내와 함께 이층 창문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며 이 건물이 다시 예배처소가 되게 해 달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곤 했다. 이웃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당이 술집으로 팔리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난 다음 해인 1988년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다시 교회로 문을 열게 되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이 곳을 방문한 한 한국목사가 ‘하나님의 집’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교회 마당에 무릎을 꿇고 이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일깨워 주셔서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도록 기도했다.” 지금 이 교회는 런던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하나가 되었다.

피너힐교회(Pinner Hill Church): 런던신학대학에 입학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이 피너힐교회에 출석했다. 당시로 50여 년이 되고 예배당

도 있으며, 한 때는 200명까지 모였고, 인근에 지교회도 개척했던 교회였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출석한 때에는 교인은 9명뿐이었고 목회자도 없었다. 교회 문을 닫으려는 결정을 하려고 모인 회의에서 누군가 인근의 신학대학에 학생들을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일년을 노력해 보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문을 닫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교회봉사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저는 전도가 필요한 교회로 보내달라고 신청했는데, 바로 이 교회로 배정을 받게 되었다. 우리 부부, 한 살 된 딸, 세 명의 학생이 출석하니 교회는 하루만에 67% 성장을 하게 되었다! 교인 6-8명이 매 주일 오후에 두 시간씩 교회 반경 1Km이내를 돌며 축호전도를 했다. 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중등부도 시작했다. 일년이 지나면서 50여 명이 출석하게 되었고, 콜린 존스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는 2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스트버리교회(Eastbury Church):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는 1997년 10월 첫 주에 영국 성도 7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다. 돌로스선교선 단장으로 가기 위해 사임하던 2004년 1월까지 이 지역의 850 집을 토요일마다 축호전도를 다녔다. 6년 반 동안 한 집씩 문을 두드리며 이 지역을 다섯 번 도는 동안, 주님께서 등록교인 140 여명에 9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 영국 교회 당 평균 교인수가 50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감사한 일이었다. 특히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10-50년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섬기는 축복을 주셨다.

쾨인트피터즈교회는 문 닫은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고, 피너힐교회는 문 닫기 직전에 소생되었고, 이스트버리교회는 새로 개척된 경우이다. 이 세가지 모델이 많이 반복되는 것이 영국과 유럽의 재복음화의 소망이며 전략이라고 믿는다. 세 교회 모두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주님은 크게 축복 해 주셨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직접 역사해 주신 것이다. 영국과 유럽에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큰 소망은 주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하셨다(요6:5-6). 주님은 이미 유럽재복음화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다. 우리의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며 기다리실 뿐이다. 비록 보잘 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기도와 열망을 담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속화된 유럽에 영의 양식과 생명을 풍성히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이미 생각하신대로 복안대로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모질지 못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려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용납과 회복을 생각하셨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호

11:7-9).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신 줄 믿는다. 2천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 온 유럽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회개와 중보기도를 원하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원문직역, 대하 7:14). 온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섰을 때에도 주님은 형벌을 내리지 않을 길을 찾으셨다. 한사람의 진지한 중보자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다”고 하셨다(겔 22:30).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실 수 밖에 없었다(겔22:31). 우리 암노스가 하나님께서 영국과 유럽을 멸하지 않고 공황을 베풀어 주시도록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하는 사역의 하나로 쓰임받길 소원한다.

암노스는 (1) 교회개혁학교 외에도 세가지 사역을 더 하고자 한다. (2) 유럽교회 상황 홍보와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세계에 알려 유럽으로 기도가 모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상황을 알아야 세계의 성도들이 유럽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기도응답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또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 땅으로 가는 헌신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3) 목회자가 없는 무목(無牧)교회들에게 목회자를 공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교

단마다 성직자 수가 많이 부족하지만 재정난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관리하게 하는 후퇴전략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 해외 중국인교회에서 사역자를 발굴하여 유럽의 무목 교회에 공급하여 교회가 문닫는 것을 막고 오히려 소생하도록 도울 필요가 절실하다. (4) 마지막으로 신학교 지원이다. 신학과 신앙과 실천을 조화시킨 사역자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임상실습을 거치면서 보완하여 유럽의 기존 신학교들과 나누어주어서 그들도 실질적이고 균형잡힌 신학교육으로 유럽교회를 살릴 사역자들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노력은 어찌하든지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교회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산부인과 병동같이 만드려는 것이다. 신학교마다 지식 추구와 학문 논쟁을 넘어서서 생명력 넘치는 신학을 가르쳐 목회자와 성도에게 신앙적 유익을 줄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도록 돕기를 소망한다.

4. 맺는 말: 교회를 살릴 개혁주의생명신학

바울은 바른 신학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열정적 신앙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실천적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신학과 신앙과 실천에는 생명이 넘쳤다. 균형이 있었다.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전제한다. 마찬가지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뜨거운 신앙과 부지런한 실천의 삶이 없다면 그것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개

혁주의신학을 바른 신학이라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신앙과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장종현 박사가 주창하는대로, 머리의 신학은 반드시 가슴의 신학과 무릎의 신학으로 내려와야 한다. 만약 신앙과 실천이 약하다면 우리가 과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바른 신학과 뜨거운 신앙은 동전의 양면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실천은 이런 신학과 신앙의 자연스런 열매여야 한다.

오늘날 신학교 교육이 유념해야 할 것은 신학과 신앙과 실천에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다. 신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신앙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열성적 신앙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바른 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또 실천 부분도 신학적 개념에서 강조된다. 그러다보니 실천이 자유함을 잃고 율법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천의 영역도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론과 당위성을 알고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삶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신앙과 실천이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한다.

유럽은 개혁주의신학의 본산지로서 한 때 세계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신앙생활의 활기를 불어넣던 곳이었다. 하지만 개혁교회가 계속하여 개혁되지 못하고 서서히 예수 복음의 생명을 종교생활로 대체해 가면서 오늘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화관과 영국의 개혁주의 교회가 훌륭한 개혁주의신학과 교단적 역사는 가지고 있었지만, 더이상 복음주의 진영에 속하지 못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오늘 살펴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모본과 사역의 모델을 신학교육과 교회생활에서 적용해 가야 하겠다. 장종현 박사가 주창한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의 5대 솔라(Sola) 정신과 7대 운동이³⁰⁾ 사변화된 신학을 바로 잡아 예수 복음의 생명으로 개인과 교회와 신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개혁주의생명신학회의 7대운동이 궁극적으로 “교회 개척”과 “교회 회복”의 두 축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의 생명력으로 기존 교회를 회복하게 되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많이 개척하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유럽재복음화에도 꼭 필요한 전략이다. 유럽교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먼저 한국에서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잘 발전시켜서 서구교회로 역수출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선교는 피부 색깔이 더 흰 곳에서 검은 곳으로 흘렀다. 더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흘렀다. 그랬기에 우리도 우리보다 피부 색깔이 더 검고 못 사는 족속을 찾아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저렇게 어렵게 되었는데도 백인들을 향하여 선교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선교는 “영적으로 더 충만한 곳에서 덜 충만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 것”인 줄 믿는다.

신학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에 유학가서 신학을 배워와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30)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 14-40.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의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며 성경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신학, 특히 신앙과 실천으로 균형잡힌 신학을 서구로 역수출해야 할 때가 왔다. 한국의 개혁주의생명신학은 훌륭한 수출 품목의 하나이다. 필자도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유럽지부장으로서 암노스교회개혁학교 사역을 통해 영국교회에서 받은 신앙적 유산의 핵심인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헝입어 되돌려 드리면서 복음의 빛을 갠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세우신 교회가 한국과 유럽은 물론 온 땅끝에서 바른 신학과 뜨거운 신앙과 신실한 실천으로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³¹⁾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기도드린다.

31) 개혁주의생명신학회 논문집 「생명과 말씀」의 표지 참조.

참고문헌

- 장종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1.
- 최종상. 「로마서: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복음」. 서울: 이레서원, 2012.
- Giono, Jean. 「나무를 심은 사람」. 김경은 역. 서울: 두레, 2005.
- Brierley, Peter, ed. *Religious Trends 3*. London: Christian Research, 2002/2003.
- _____. *UK Church Statistics 2005-2015*. Tonbridge: ADBC Publishers, 2011.
- Carey, George. “Crisis or Christ?” Press Release No. 48, 13 December 1998.
- Chae, Daniel. “Paul.” In *Dictionary of Mission Theology Evangelical Foundations*, edited by John Corrie, 275-279. Nottingham: IVP, 2007.
- _____. *Paul as Apostle to the Gentiles: His Apostolic Self-Awareness and its Influence on his Soteriological Argument in Romans*. Carlisle: Paternoster, 1997.
- Friderich, S. Scot. *European Spiritual Estimate: Final Report*. EMRG Strategic Research for Church Multifcation, published on 6 March 2006.
- Hengel, M.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Translated by J. Bowden. London: SCM, 1983.
- Kümmel, W. G.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J. E. Steely. London: SCM, [1972] 1974.
- Mandryk, Jason. *Operation World*. 7th edition. Carlisle: Paternoster, 2010.
- Park, Alison, and others.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 2011/2012*. London: Sage Publications, December 2011.
- The Pew Forum. “Mapping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Muslim Population,” 15 October 2009.
- Schaeffer, Francis.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Wheaton: Crossway, 1984.
- Wagner, C. Peter. *Church Planting Essentials*. San Diego: DCPI.
- Warner, Rob. *21st Century Church: Why Radical Change Cannot Wait*.

Eastbourne: Kingsway, 1999.

White, James Emery. *What They Didn't Teach You in Seminary: 25 Lessons for Successful Ministry in Your Church*. Grand Rapids: Baker, 2011.

〈Newspaper and Website Articles〉

Gledhill, Ruth. "Thousands of churches face closure in ten years." *The Times*, London, 10 February 2007.

Harmon, Kendall. "Church of England set to lose a tenth of its clergy in five years." *The Times*, London, 27 November 2009.

Kerbaj, Richard. "Muslim Population 'rising 10 times faster than rest of Society'." *The Times*, London, 30 January 2009.

Kovoor, George. An Interview with *The Kukminilbo*, 10 December 2010.

Southam, Hazel. "Church will be Dead in 40 Years Time." *The Independent*, London, 16 April 2000.

www.ummah.com/forum/archive/index.php/t-43124.html?s=0ab4b8060e6b0393f8d12efdf76b3a0d.

www.yorkshiretoday.co.uk/View...icleID=1383454).

<http://chtimes.co.kr/lib/news/4669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561>.

국문초록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나타난 개혁주의생명신학: 그 원리와 21세기 적용

최종상(Daniel Jong-Sang Chae)

암노스교회개혁학교, 신약학

이 글은 유럽의 교회 감소상황을 전하면서 시작된다. 교회가 아무리 오랜 역사, 좋은 전통, 심오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동하는 생명력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기 위해서다.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학교들이 신학과 신앙과 실천을 균형있게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육에만 치우쳐 있고, 그 신학도 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 학생들을 뜨거운 가슴의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지 못하고, 또 사역 현장에 나아가 배운 것을 실천하며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신학을 “과학의 여왕”으로 여기며 가르쳐 왔던 유럽의 신학교들이 그러했다. 따라서 유럽의 교회는 오늘날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유럽은 심각한 선교지로 변했다. 개혁주의신학의 본산지인 유럽이 이렇게 된 것은 개혁주의신학에 생명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원조(元祖)다. 그는 신학과 신앙과

실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바울은 오늘의 신학교와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이 글은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리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 교회와 신학교가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바울은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수호하며 그의 신학을 표현하였다.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신학과 신앙과 실천의 균형을 유지했던 바울의 사역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영국의 암노스교회개척학교의 사역자 훈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교회를 살리자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소개되고 수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개혁주의생명신학, 교회개척, 암노스, 신학교육, 유럽

Abstract

Reformed Life Theology in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Apostle Paul:
The Pauline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21st Century

Daniel Jong-Sang Chae
Amnos Church Planting School, New Testament

This article begins by surveying the decline of churches in Europe today. It makes the point that if the Church loses its life of dynamic vitality it is bound to fall even if it has a long history, good tradition and profound theology. If the church is determined to recover the power of the gospel and to save the world, it is vital for theological institutions to equip students with the balance in theology, discipleship and practice. Regrettably most theological institutions focus on teaching theology as merely an academic discipline. They pay little attention to equipping students as the disciples of Christ whose hearts are filled with passion and commitment. Their training does not offer students practical tools that they can use in their fields of ministry. It is the case particularly among the theological institutions in Europe, which regard theology as “the queen of science”. As a result the church in Europe has experienced a rapid decline, and Europe, which used to be the main force for mission,

has now become a serious mission field. It is because reformed theology, which originated in Europe, lacks life in its theology.

The Apostle Paul is the father of Reformed Life Theology. He was a model who planted life-giving churches and pastored them by keeping the balance with theology, discipleship and practice. The churches and theological institutions today need to take his example seriously. Paul expressed his theology by both explaining the truth of the gospel and defending it. The core of his gospel was Jesus Christ, his suffering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He was a committed disciple of Christ who had firm and passionate conviction in the gospel. Furthermore, he was a Christian who put into practice the truth of the gospel in daily life. Amnos Church Planting School, UK, is introduced towards the end of this article, as a case institution which applies the Pauline principles in training church planters and pastors. The ethos of Reformed Life Theology, that is to revitalize the Church with the life of the gospel, needs to spread to the world.

Key words: Reformed Life Theology, church planting, Amnos, theological training, Europe

논문 접수일: 2012년 8월 22일 수정 접수일: 2012년 9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0월 15일